화엄론 입각한 불 · 유 · 도 삼교일치 실현에 '노력'

<42> <명도집설(鳴道集說)>의 저자 이순보(李純甫) 거사



그림 · 김홍인

금(金) · 원(元) 통치기간 동안 중국 북방지역에서는 오가칠종 가운데 조동종(曹洞宗)만이 그 명맥을 유지했다. 이는 <종용록(從容錄)>을 찬술한 만송행수(萬松行秀; 1266~1246) 선사의 활약이 두드러진 까닭이다. <석씨계고략(釋氏稽古略)> 권4에 따르면, "금의 황제는 조동선파(曹洞禪派) 만송 장로를 내전에서 설법하도록 조칙을 내렸다. 장종(章宗)황제는 친히 예를 갖추어 맞이해 금기대승가의(錦綺大僧伽衣)를 봉헌했다. 후비(后妃)와 황족들이 예배했고, 각각 진귀한 물건을 보시했고, 보도회(普度會)를 베풀었다"라고 해 금의 장종에게 귀의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만송 선사의 선사상에 대해서는 "공자와 노자, 장자 및 백가의 학문에 회통하지 않는 바가 없고, 항상 <화엄>을 업으로 삼았다"(<오등엄통(五燈嚴統)> 권14)고 하며, "유학과 불학을 겸비했고, 종설(宗說)에 정통해 변재(辯才)에 걸림이 없었다"(야율초재(耶律楚材)의 <종용록> 서문)는 것으로부터 불교와 유 · 도 양가에도 널리 회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송 선사는 황제의 명에 따라 대도(大都; 현 北京)의 여러 사찰에 주지를 맡아 널리 교화해 조동종을 '중흥' 시켰고, 만송 선사의 법맥은 명(明) · 청(淸)에 이르도록 지속됐다.

불경 두루 보고나서 나이 서른에 관직 버리고 은둔
대표작 '명도집설' 외에 대문장가로서 많은 작품 남겨

만송 선사의 제자로는 설정복유(雪庭福裕) 등 다수가 있다. 유명한 재가의 제자로는 이순보와 야율초재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이순보(1185~1231) 거사는 <명도집설>의 저자로 유명하다.

이순보 거사는 자(字)가 지순(之純)이고, 호는 '병산거사(屛山居士)'로 홍주(弘州) 양양(襄陽)사람이다. 팽제청의 <거사전> 권35에 실린 전기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비상하게 총명해 스스로 '제갈공명'과 비교했고, 금의 장종 승안(承安) 2년(1197) 13세에 진사에 합격해 이름을 널리 떨쳤다고 한다. 특히 병법을 좋아해 장종이 남정(南征)할 때 두 차례 상소를 올려 전략을 제시했다. 당시 재상은 그 글을 높이 평가해 한림(翰林)에 추천해 들게 했다. 후에 벼슬이 경조부(京兆府)의 판관(判官)에 이르렀다.

거사는 나이 서른에 이르러 불경을 두루 보게 됨에 따라 자신의 재주와 학문이 보잘 것 없음을 깨닫고는 관직을 버리고 은둔해 술로 세월을 보냈다. "한가롭게 머물며 선승(禪僧), 선비들과 더불어 노닐며 오직 술과 글로서 일을 삼았다. 퉁소 소리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예법에 벗어나 술을 마셔 혹은 수개월동안 취한 채로 보냈다…. 비록 취해 있었지만, 책과 글을 씀은 폐하지 않았다."(<귀잠지(歸潛志)> 권1) 이러한 거사를 사대부들이 분분히 찾아 법을 물었다. 거사는 근기에 따라 지도하여 "막힌 자는 통하게 해주었고, 의심하는 자는 믿음을 갖게 해 모두 통쾌하여 돌아가게 했다." 이런 거사를 "당세(當世)의 용문(龍門)"이라고 칭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행수 선사를 만나 한 마디에 서로 계합해 거사는 선사를 따르며 선의 오의(奧義)를 구했다. 거사는 선사와 "매번 술을 즐기며 천하의 일을 논하고, 혹은 불교와 유학의 동이(同異)를 논했는데, 비록 서로 논박했지만 결코 그 어느 쪽도 굴함이 없었다"(<귀잠집>권1)고 했다.

거사는 만년에 평생의 저작을 분류해 불 · 도 양가와 성리(性理)를 논한 것을 '내고(內稿)'라고 칭하고, 그 외의 비문, 시부(詩賦) 등을 '외고(外稿)'로 칭했다. 또한 <능엄경> <금강경> <노자> <장자>에 대한 주석서와 <중용집해(中庸集解)> <명도집해(鳴道集解)>를 '중국심학서방문교(中國心學西方文敎)'라고 통칭했다. 이로부터 거사가 '중서(中西)' 즉 인도와 중국의 융합과 불 · 유 · 도 삼교의 합일을 표방하고 있음이 짐작된다.

거사는 금대(金代)의 대문장가로서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저작이 현존하지 않는다. 거사의 <명도집설>은 현존하는 삼교융합을 제창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책은 후대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학가(理學家)들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책은 본래 2백17편에 이른다.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권20에는 그 가운데 19편만을 게재했다.(<명도집설>의 온전한 판본은 藍吉富編 <大藏經補編>(臺北:華宇出版社 , 1985.) 26책에 실려 있지만, 필자는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 <불조역대통재>의 편집자인 염상(念常)은 "제유(諸儒)의 <명도집(鳴道集)>에는 217종의 견해가 있다. 모두 진리에 어리석고 성품을 잃은 것이며, 명상(名相)에 집착하여 쟁론을 일으키는 실마리로서 혹업(惑業)을 일으키는 재앙이다. 대체로 법성(法性)에 융통하지 못한 것이다. 병산 거사는 지극한 도리에 깊이 밝아 그 어두운 눈으로 네거리를 헤맬까 근심되어 그를 분석해 논하여 말학(末學)의 폐단을 구하고자 했다. 마힐(摩詰; 王維 거사)과 조백(棗柏; 李通玄 장자)이 다시 세상에 나타난다 해도 또한 더할 수 없음이다. 그러므로 <통재>에 19편을 실었다"고 했다. 이는 <통재>에 <명도집설> 가운데 19편을 선정해 게재한 이유를 밝히는 대목이고, 또한 거사의 <명도집설>이 바로 <명도집>에 대한 반론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명도집>은 송대 이학가들의 배불론을 집대성한 것으로 72권 217편으로 구성됐다. <통재>에서는 또한 <명도집설>에 실린 야율초재 거사의 <서문>을 인용하고 있다. "옛날에 내가 <명도집>을 보았을 때, 심히 불공평해 그 오류를 바로 잡는 책을 쓰고 싶었으나 미처 겨를이 없었다. 병산이 나보다 먼저 책을 써서 바로 잡으니,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라고 평했다. 야율초재는 바로 거사와 함께 만송 선사의 대표적인 재가제자이다. 또한 서문에서는 "거사가 29세에 <복성서(復性書)>를 읽고서 이습지(李習之; 李翺)가 또한 29세에 약산(藥山) 선사를 참알하고서 물러나 이 책을 썼음을 알고서 크게 감탄했다. 만송 선사가 심하게 거사를 공격하자 물러나 이 책을 썼다. 세 성인의 도리와 성품[理性]이 함축된 묘요(妙要)는 끝내 불조(佛祖)로 귀결될 뿐"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부터 보자면, 만송 선사를 참알한 후에 거사가 <명도집설>을 찬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거사전>에 보이는 찬술연령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거사전>에서는 이순보 거사의 입적 후에 비로소 야율초재 거사가 서문을 찬술해 세상에 알려졌다고 기술했다. 따라서 거사가 <명도집설>을 찬술한 것은 29세 혹은 30세이지만, 그것이 출간돼 세상에 알려진 것은 바로 거사의 입적 후의 일이었다.

<명도집설>의 주된 사상은 불교와 유 · 도 양가의 교설을 융회해 화엄론에 입각한 삼교일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바탕에는 "세 성인의 도리와 성품이 함축된 묘요는 끝내 불조로 귀결될 뿐"이라는 말처럼 불교가 중심이었다. <통재>에 실린 19편 가운데 불교와 유학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불교와 유가의 우열은 불교에서 유서(儒書)의 허물을 읽고, 또한 유가에서 불서(佛書)의 병폐를 읽는데 있지 않다. 내가 <수능엄경>을 읽었을 때, 유가는 불교의 아래에 있음을 알았다. 또한 <아함> 등의 경전을 읽었을 때는 불교가 유가의 아래임을 알았다. 그러나 <화엄경>을 읽고 난 후에는 부처[佛]도 없고 선비[儒]도 없으며,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어, 능히 부처도 되고 선비도 되며, 능히 큰 것과 작은 것을 보존하고 없앰을 자재(自在)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거사는 화엄의 원융사상으로 유학과 불교의 대립을 해결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거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만약 <화엄경>의 해인삼매(海印三昧)와 제석천망(帝釋天網) 등의 원교(圓敎)가 없다면, "학도자(學道者)는 무위(無爲)의 갱에 떨어져 오묘함만을 논하는 사견(邪見)의 경계에 들어가 노장(老莊)의 내성외왕(內聖外王), 공맹(孔孟)의 상달하학(上達下學)의 학설이 모조리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이로부터 거사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불교의 인도가 없다면 유 · 도 양가의 학설은 한쪽으로 치우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사전>에서는 <명도집설>을 동시대 류밀(劉謐)의 <삼교평심론(三敎平心論)>과 명초(明初) 심사영(沈士榮)의 <속원교론(續原敎論)>과 유사해 그 대지(大旨)가 "대체로 같다[略同]"고 평가했다. 이러한 팽제청 거사의 평가는 바로 송대에 유학의 흥기로 쇠퇴된 불교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만송행수 선사의 활약과 이순보 거사의 <명도집설>을 통한 삼교회통의 적극적인 주장은 다시 북방에서 불교가 정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전통사찰



■ 대지 : 실,사용 (200평) 등기 123평
■ 법당 : 30평 (목조단청)
■ 요사 : 2동, 종무소 (불사리탑 5층)
■ 특징 : 포교와 전법수행 도량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인접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인 사찰입니다.
■ 가액 : 11억

010-9336-2568

서울 – 과천 – 의왕 – 수원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안사 (등록번호 제 2541-15호)
• 법 명 : 오연(윤명자) 승적번호 1196-20448
의전(나현숙) 승적번호 1196-20449
일정(이경주) 승적번호 1101-20447
대원(문도경) 승적번호 1105-20778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68-1

위 사찰과 위 본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재)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43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마사지나 지압등의 수기법이 아닌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
▶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서울 전문가반 개강
◆ 수련일자 : 9월 11일(금)오후 7:00~9:20(주1회 6개월)
◆ 대 상 자 : 기치유능력이 있거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

서울 양성반 개강
◆ 수련일자 : 9월 12일(토)오후 2:00~4:20(11주과정)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문의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대구 양성반 개강 문의 : 053-652-2202
◆ 수련일자 : 9월 17일(목)오후 7:00~(11주과정)
◆ 수련일자 : 9월 19일(토)오후 3:00~(11주과정)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8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6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서진주 I C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 문의전화 : **055)747-8419**

영남범패불음원